

Issue Brief [No.7]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발행일 : 2015. 12. 28. 발행인 : 현혜순

제주지역 여성 고용 동향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Contents

I. 경제활동 인구 / 2

II. 취업자 / 4

1. 고용률 추이 / 4
2.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 6
3. 임금 / 11

III. 실업자 / 13

1. 실업률 추이 / 13
2. 성별, 연령별 실업률 / 14

IV. 경력단절 여성 / 15

V. 요약 및 시사점 / 19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제주지역 여성 고용 동향

고 지 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I. 경제활동 인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주 60.5%, 전국 51.3%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 여성 가장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의 15세 이상 여성 인구 242천 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146천 명으로 60.5%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고, 전년(59.5%) 대비 1.0%p 증가함.
-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의 15세 이상 남성 인구 233천 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177천 명으로 75.7%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고, 전년(75.0%) 대비 0.7%p 증가함.
- 제주 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 모두 2005년 최고점(여성 63.6%, 남성 76.9%), 2010년 최저점(여성 58.2%, 남성 74.1%)을 기록하였고 2010년 이후 최근 약 5년 간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경제활동 인구 추이(2000, 2005, 2010~2014)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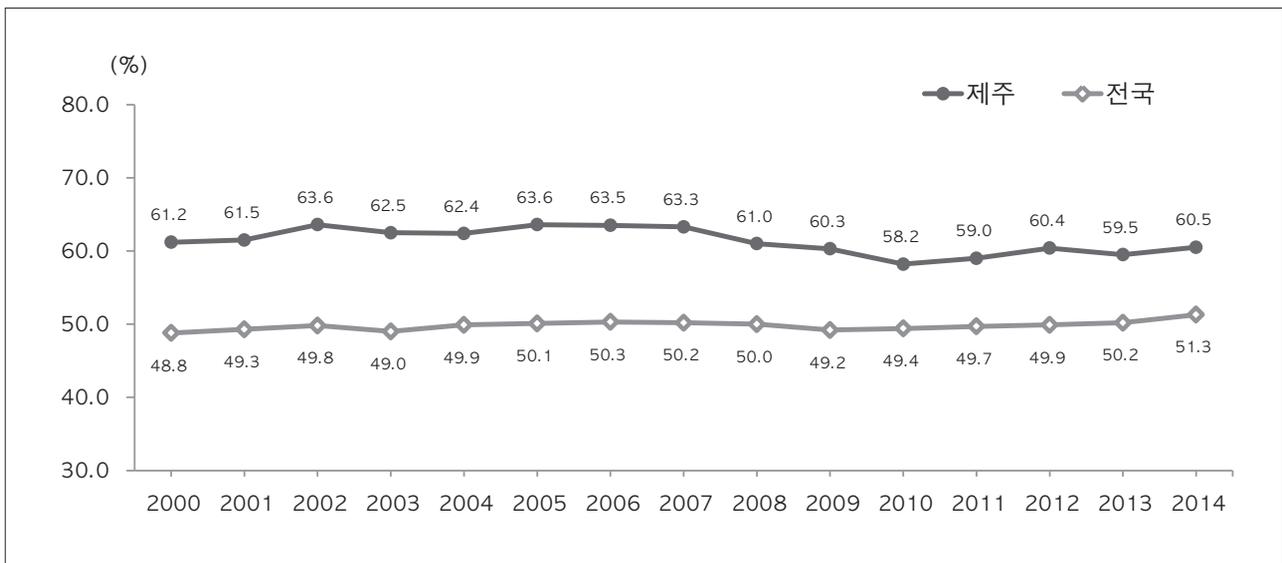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00	395	206	188	268	126	142	67.8	61.2	75.5
2005	415	215	200	291	137	154	70.0	63.6	76.9
2010	438	224	213	289	131	158	66.0	58.2	74.1
2011	443	227	216	296	134	163	66.9	59.0	75.3
2012	447	229	218	301	138	162	67.3	60.4	74.6
2013	462	236	226	310	140	170	67.1	59.5	75.0
2014	475	242	233	323	146	177	68.0	60.5	75.7

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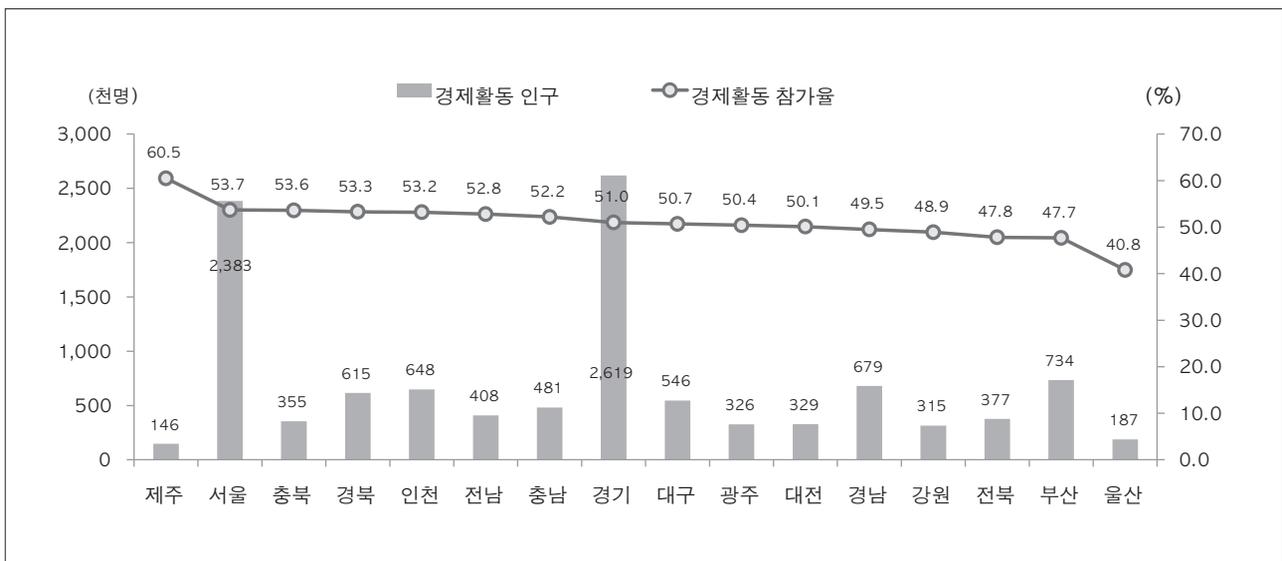
- 2014년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60.5%)은 전국 여성 평균(51.3%)과 비교할 때 9.2%p 높고, 2000~2014년 간 연도별로 비교할 때, 평균 약 11.6%p 높게 유지되고 있음.
-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제주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울(53.7%), 충북(53.6%), 경북(53.3%), 인천(53.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울산(40.8%)이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1〉 전국 및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2000~20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시도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20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II. 취업자

1. 고용률 추이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률, 전체 66.6%, 여성 59.2%, 남성 74.2%
 남녀 고용률 격차 15.0%p, 2000년대 평균(13.5%p)보다 남녀 격차 증가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30대 후반에 감소하는 경력단절 현상 뚜렷

-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는 316천 명이고, 이 중 여성은 143천 명, 남성은 173천 명으로 나타남. 전년 대비 여성 취업자는 5천명, 남성 취업자는 7천 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 간 제주지역 취업자는 남녀 모두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률은 전체 66.6%, 여성 59.2%, 남성 74.2%이며, 남녀 고용률의 격차는 15.0%p로 나타남. 남녀 고용률의 격차는 2000년대 평균 13.5%p였으나, 2010년 이후 평균 15.0%p로 남녀 고용률 격차가 증가한 편임.

〈표 2〉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2000, 2005, 201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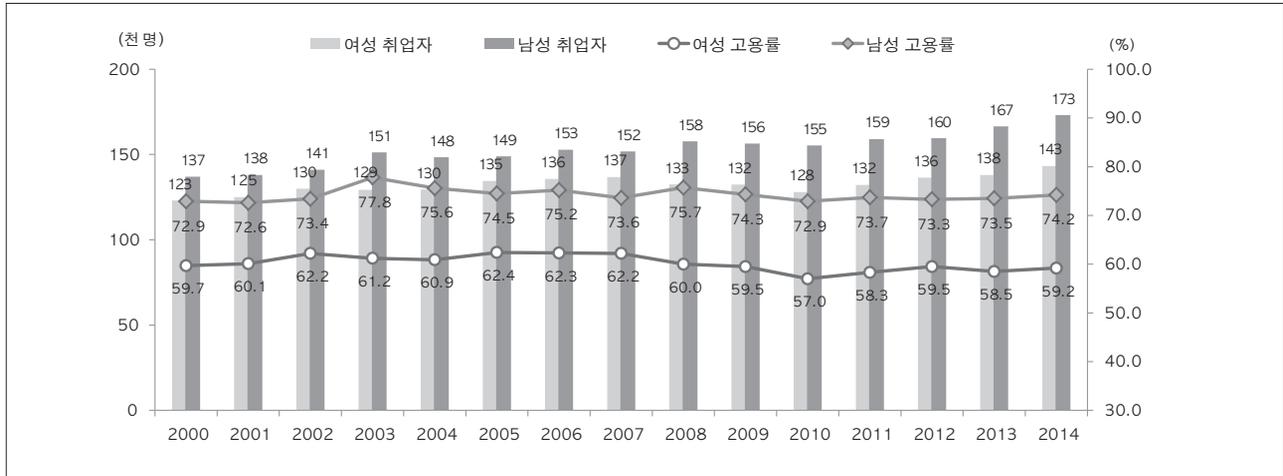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고용률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00	395	206	188	261	123	137	66.1	59.7	72.9
2005	415	215	200	284	135	149	68.3	62.4	74.5
2010	438	224	213	283	128	155	64.8	57.0	72.9
2011	443	227	216	291	132	159	65.8	58.3	73.7
2012	447	229	218	296	136	160	66.2	59.5	73.3
2013	462	236	226	305	138	167	65.9	58.5	73.5
2014	475	242	233	316	143	173	66.6	59.2	74.2

주 : 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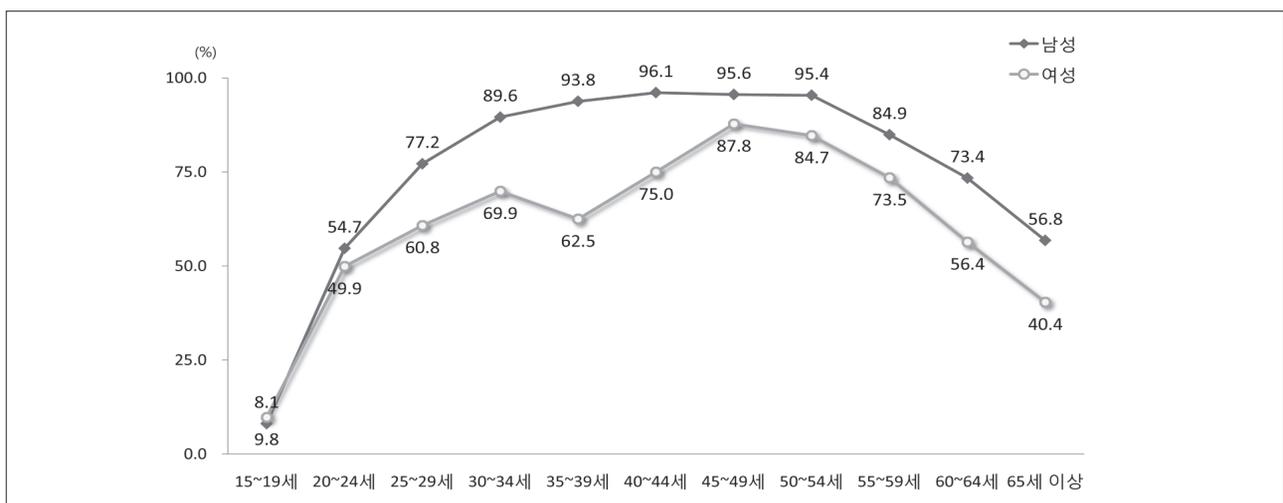
〈그림 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2000~20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4년 제주도민의 연령별 고용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15~19세 9.8%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0~34세에 69.9%로 높아졌다가 35~39세에 62.5%로 감소하는 경력단절 현상을 보인 후 다시 상승하여 45~49세에 87.8%의 최고점을 기록한 후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40.4%로 감소함.
- 남성의 고용률은 15~19세 8.1%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40~44세에 96.1%로 최고점을 기록하고 50대 초반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55~59세에 84.9%로 감소한 후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56.8%로 낮아짐.
- 여성의 고용률은 전형적인 경력단절 현상인 M자 곡선을 나타내고, 남성의 고용률은 전형적인 역U자(∩)의 곡선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4〉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연령별 고용률(201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분석(2014년 하반기 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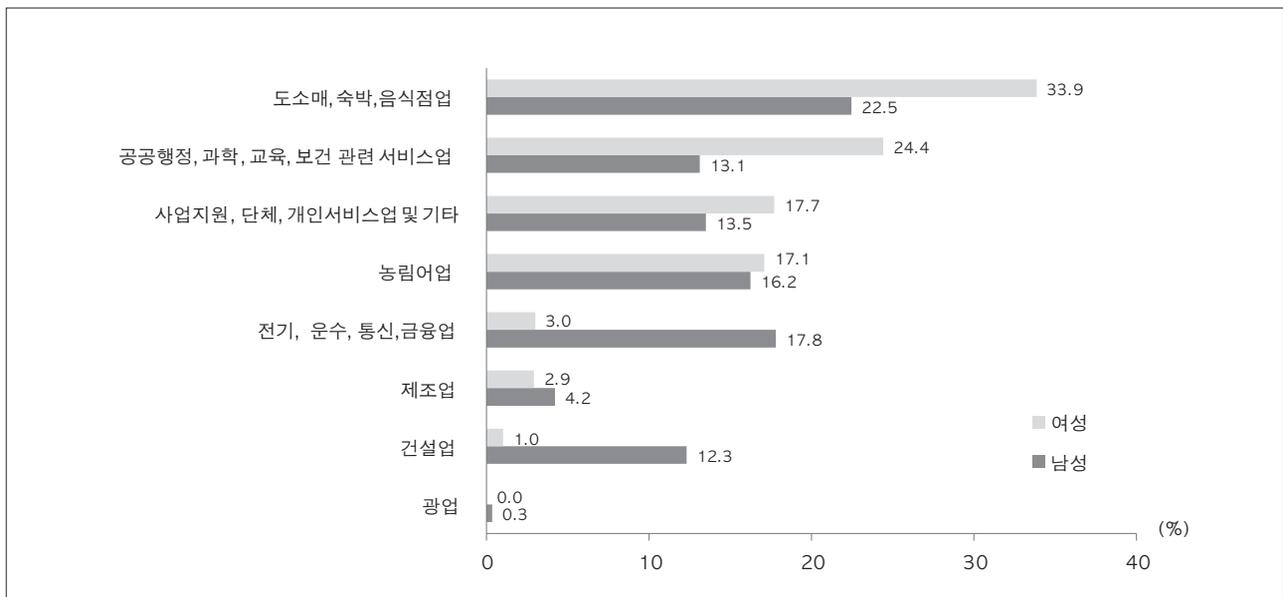
2. 취업자의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여성 취업자의 33.9%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종사
 여성 취업자의 직업, 35.8% 서비스·판매직, 20.1% 단순노무직
 관리직 여성 비율 남성보다 10.3배 낮음(여성 0.3%, 남성 3.1%)
 무급가족종사자 여성 비율 남성의 8.8배(여성 13.2%, 남성 1.5%)

1) 산업

-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하여 2014년 제주지역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33.9%)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다음으로 공공행정 및 과학·교육·보건 관련 서비스업(24.4%), 사업지원 등 기타 서비스업(17.7%), 농림어업(1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 취업자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종사자가 22.5%로 가장 많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17.8%), 농림어업(16.2%), 사업지원 등 기타 서비스업(13.5%), 공공행정 등 기타 관련 서비스업(1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별 성별 취업자(201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14년 하반기 A형).

2) 직업

-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하여 2014년 제주지역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가 21.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단순노무 종사자(20.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6.9%), 판매 종사자(14.8%), 사무 종사자(1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관리직 여성 종사자는 0.3%에 불과함.
- 남성의 직업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1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치, 기계, 조립 종사자(15.2%), 단순노무 종사자(13.8%)가 많으며, 서비스 종사자(11.6%)와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11.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1.3%)가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함.
- 여성은 남성에 비해 관리직 종사자 비율(여성 0.3%, 남성 3.1%)이 10.3배 낮고, 서비스직과 판매직 여성 종사자 비율(35.8%)이 동 직종 남성 종사자 비율(20.3%)에 비해 1.7배 높게 나타남. 단순 노무직의 경우, 여성 종사자 비율(20.1%)이 남성 종사자 비율(13.8%)에 비해 약 1.5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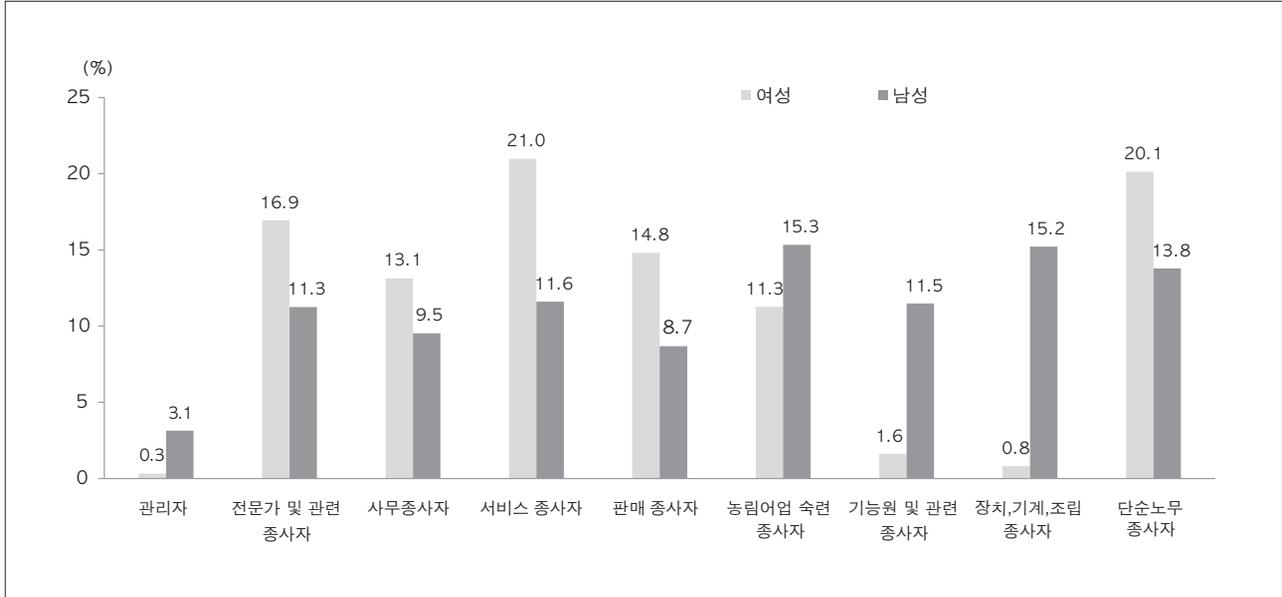
〈표 3〉 제주특별자치도 직업별 성별 취업자(2014)

(단위: 천 명, %)

	취업자 수			비율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계	321.7	145.2	176.5	100.0	100.0	100.0
관리자	6.0	0.5	5.5	1.9	0.3	3.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4.5	24.6	19.9	13.8	16.9	11.3
사무 종사자	35.9	19.1	16.8	11.2	13.1	9.5
서비스 종사자	50.9	30.4	20.5	15.8	21.0	11.6
판매 종사자	36.8	21.5	15.3	11.4	14.8	8.7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43.4	16.4	27.1	13.5	11.3	15.3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2.6	2.4	20.3	7.0	1.6	11.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8.0	1.2	26.9	8.7	0.8	15.2
단순노무 종사자	53.6	29.2	24.3	16.6	20.1	13.8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14년 하반기 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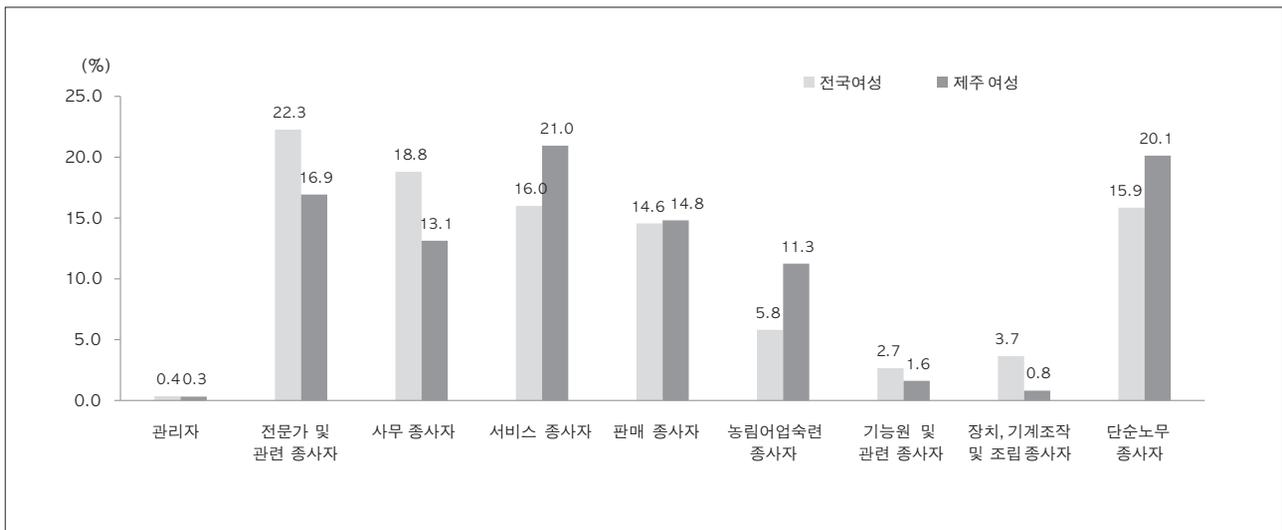
〈그림 6〉 제주특별자치도 직업별 성별 취업자(201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분석(2014년 하반기 A형).

○ 〈그림 7〉은 제주 여성 취업자의 직업을 전국 여성 취업자의 직업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함. 2014년 기준, 제주 여성 취업자는 전국 여성 취업자 대비 관리자(전국 0.4%, 제주 0.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국 22.3%, 제주 16.9%), 사무 종사자(전국 18.8%, 제주 13.1%), 기술 기능직(전국 6.4%, 제주 2.4%) 종사자 비율이 낮고, 서비스직(전국 16.0%, 제주 21.0%), 판매직(전국 14.6%, 제주 14.8%), 단순노무직(전국 15.9%, 제주 20.1%)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7〉 전국 및 제주 여성의 직업별 취업자 (201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분석(2014년 하반기 A형).

3) 종사상의 지위

-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하여 2014년 제주지역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여성은 상용직 근로자가 31.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임시직 근로자(27.4%), 자영자(14.0%), 무급가족 종사자(13.2%), 일용직 근로자(9.7%), 고용주(4.6%)의 순으로 분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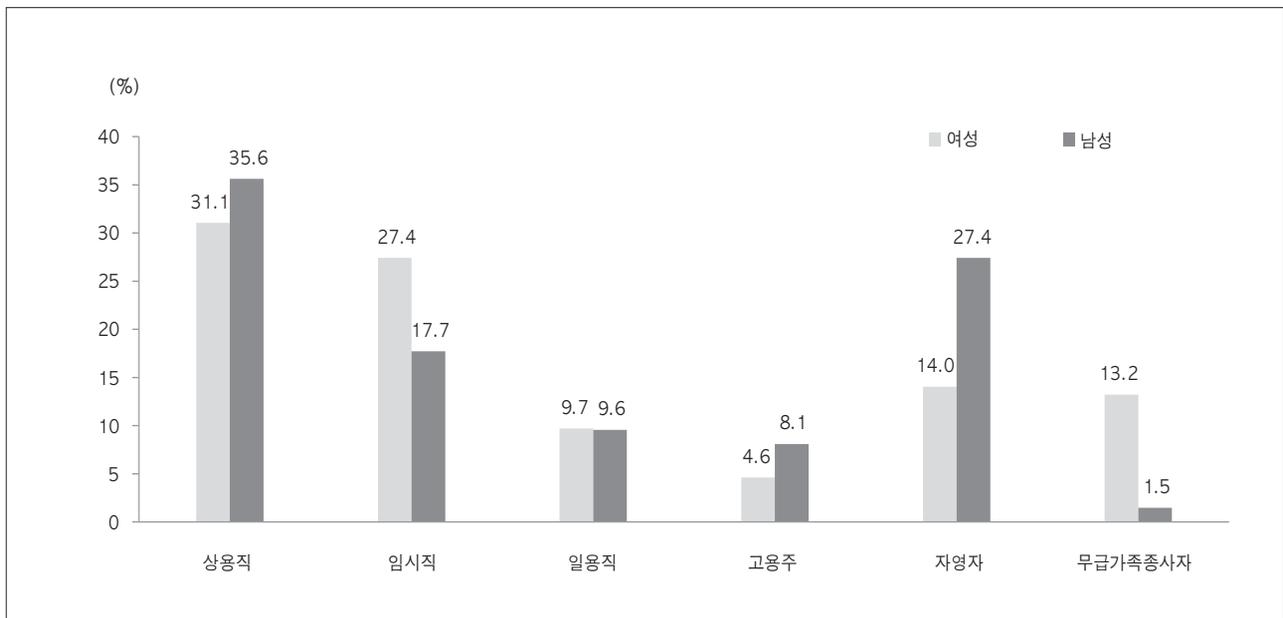
〈표 4〉 제주특별자치도 종사상지위별 성별 취업자(2014)

(단위: 천 명, %)

	취업자 수			비율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계	321.7	145.2	176.5	100.0	100.0	100.0
상용직	108.0	45.1	62.9	33.6	31.0	35.6
임시직	71.1	39.8	31.3	22.1	27.4	17.7
일용직	31.0	14.1	16.9	9.6	9.7	9.6
고용주	21.0	6.7	14.3	6.5	4.6	8.1
자영자	68.8	20.4	48.4	21.4	14.0	27.4
무급가족 종사자	21.8	19.2	2.6	6.8	13.2	1.5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분석(2014년 하반기 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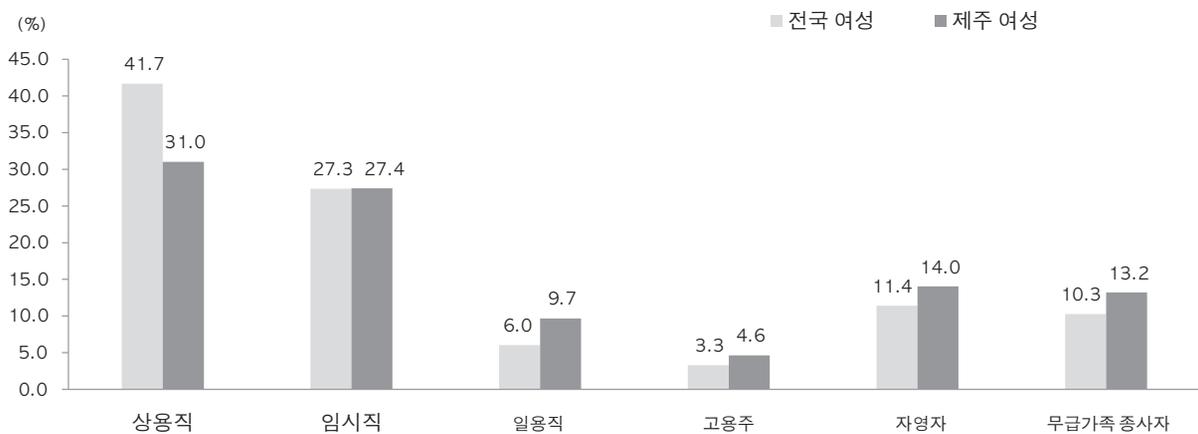
〈그림 8〉 제주특별자치도 종사상지위별 성별 취업자(201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분석(2014년 하반기 A형).

- 남성 취업자는 상용직 근로자가 35.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영자(27.4%), 임시직 (17.7%), 일용직 (9.6%), 고용주(8.1%), 무급가족종사자(1.5%)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용직 종사자 비율이 낮고, 임시직과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임시직의 경우, 여성은 남성의 1.5배,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여성은 남성의 8.8배 높게 분포하고 있어 여성의 직업 지위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그림 9〉 전국 및 제주 여성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201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분석(2014년 하반기 A형).

- 〈그림 9〉는 제주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를 전국 여성 취업자와 비교한 결과를 제시함. 2014년 기준, 제주 여성 취업자는 전국 여성 취업자 대비 상용직 근로자 비율(전국 41.7%, 제주 31.0%)이 현저히 낮게 나타남. 상용직을 제외한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제주 여성 취업자 비율이 전국 여성 평균보다 모두 높게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제주 여성 직업의 다양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용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의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음.

3. 임금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전체 1,763천원, 여성 1,353천원, 남성 2,128천원
 성별 임금 격차, 2012년 62.1%, 2013년 59.9%, 2014년 63.6%
 전국 임금근로자 임금 대비, 제주 여성 임금 84.4%, 남성 임금 78.8%

- 통계청의「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제주지역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12년 1,698천원, 2013년 1,684천원, 2014년 1,763천원으로 나타남.

〈표 5〉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성별 격차(2012~2014)

(단위: 천 원,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성별 격차
전국				
2012	2,111	1,498	2,576	58.2
2013	2,201	1,579	2,675	59.0
2014	2,223	1,602	2,700	59.3
제주				
2012	1,698	1,291	2,080	62.1
2013	1,684	1,262	2,106	59.9
2014	1,763	1,353	2,128	63.6
전국과의 격차(2014)	79.3	84.4	78.8	-

주 : 1) 임금근로자가 지난 3개월간 주된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으로 세금공제전 임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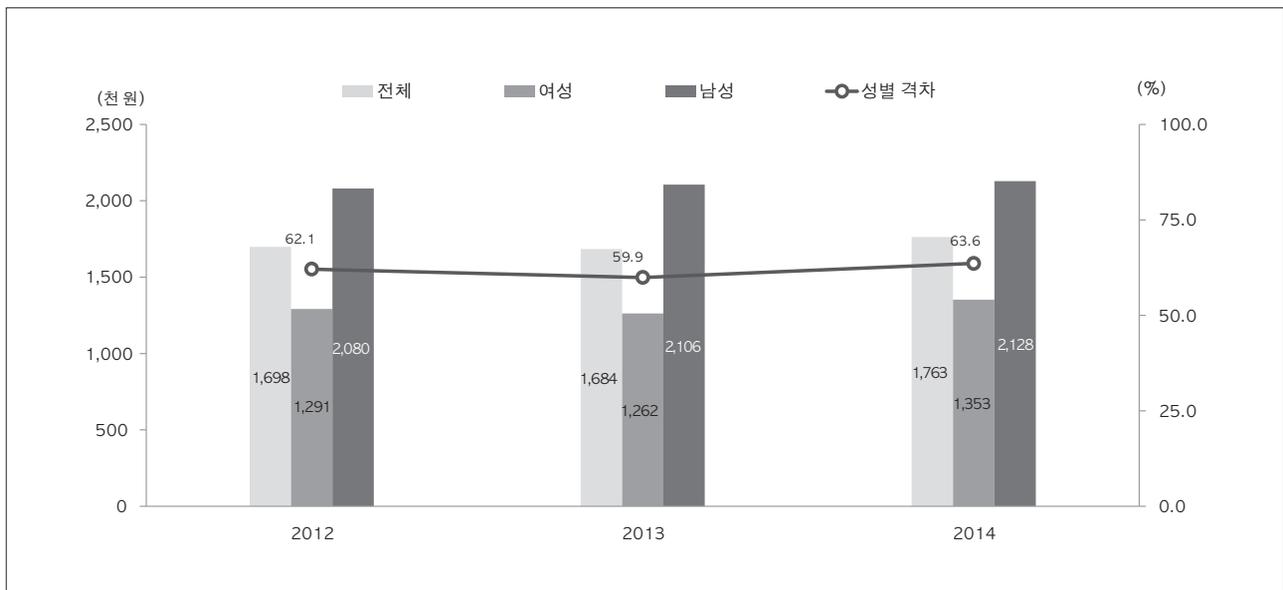
2) 성별 격차는 남성 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을 백분위로 나타낸 것임(여성 임금/남성 임금×100).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12년 3분기 A형, 2013년 하반기 A형, 2014년 하반기 A형).

-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2년 1,291천원, 2013년 1,262천원, 2014년 1,353천원으로 나타남. 여성 임금은 2013년에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4년 전년 2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2년 2,080천원, 2013년 2,106천원, 2014년 2,128천원으로 지난 3년 간 꾸준히 소폭씩 증가하였음.
- 제주지역 성별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남성 대비 임금 비율은 2012년 62.1%에서 2013년 59.9%로 하향하였으나 2014년 63.6%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남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음. 2014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국 2,223천 원, 제주 1,763천 원으로 제주지역 임금은 전국 평균의 79.3% 수준임. 제주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1,353천 원)은 전국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1,602천 원)의 84.4% 정도이며, 제주 남성 임금근로자의 임금(2,128천 원)은 전국 남성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2,700천 원)의 78.8%로 나타남.
- 임금으로 살펴보는 제주지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고, 특히 남성의 임금 수준이 낮음. 양질의 고용 확대와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등, 제주 지역 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그림 10〉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및 성별 임금 격차(2012~201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분석(2014년 하반기 A형).

III. 실업자

1. 실업률 추이

제주특별자치도 실업률, 전체 2.0%, 여성 2.2%, 남성 1.9%
 여성 실업률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 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 확대 필요
 25-29세 청년 여성 실업률 가장 높은 5.7%,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 필요

- 2014년 제주지역 실업자는 전체 6,6천 명, 여성 3,2천 명, 남성 3,4천 명이며, 전년 대비 남성은 변화 없으며, 여성 실업자는 약 800명 증가함. 2011~2014년 간 실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큰 변화 없는 반면 여성 실업자는 2011년 1.6천 명에서 2012년 2.0천 명, 2013년 2.4천 명, 2014년 3.2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임. 이는 일자리를 찾는 여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성의 구직 지원 정책이 필요함.

〈표 6〉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2000, 2005, 2010~2014)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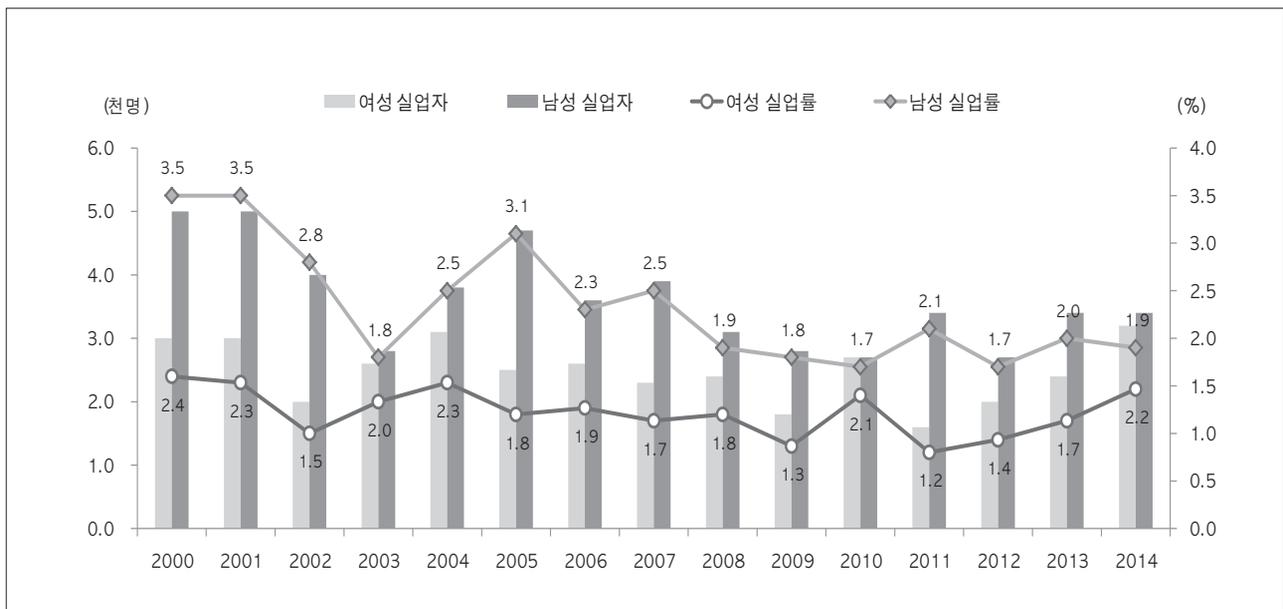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실업률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00	268	126	142	8.0	3.0	5.0	3.0	2.4	3.5
2005	291	137	154	7.2	2.5	4.7	2.5	1.8	3.1
2010	289	131	158	5.3	2.7	2.7	1.8	2.1	1.7
2011	296	134	163	5.0	1.6	3.4	1.7	1.2	2.1
2012	301	138	162	4.7	2.0	2.7	1.6	1.4	1.7
2013	310	140	170	5.7	2.4	3.4	1.8	1.7	2.0
2014	323	146	177	6.6	3.2	3.4	2.0	2.2	1.9

주 :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 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 실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14년 제주 지역의 실업률은 전체 2.0%, 여성 2.2%, 남성 1.9%로 여성 실업률이 높게 나타남. 지난 몇 년 간 남성 실업률이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인데 반해 여성 실업률은 2011년 1.2%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 여성의 일자리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그림 1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200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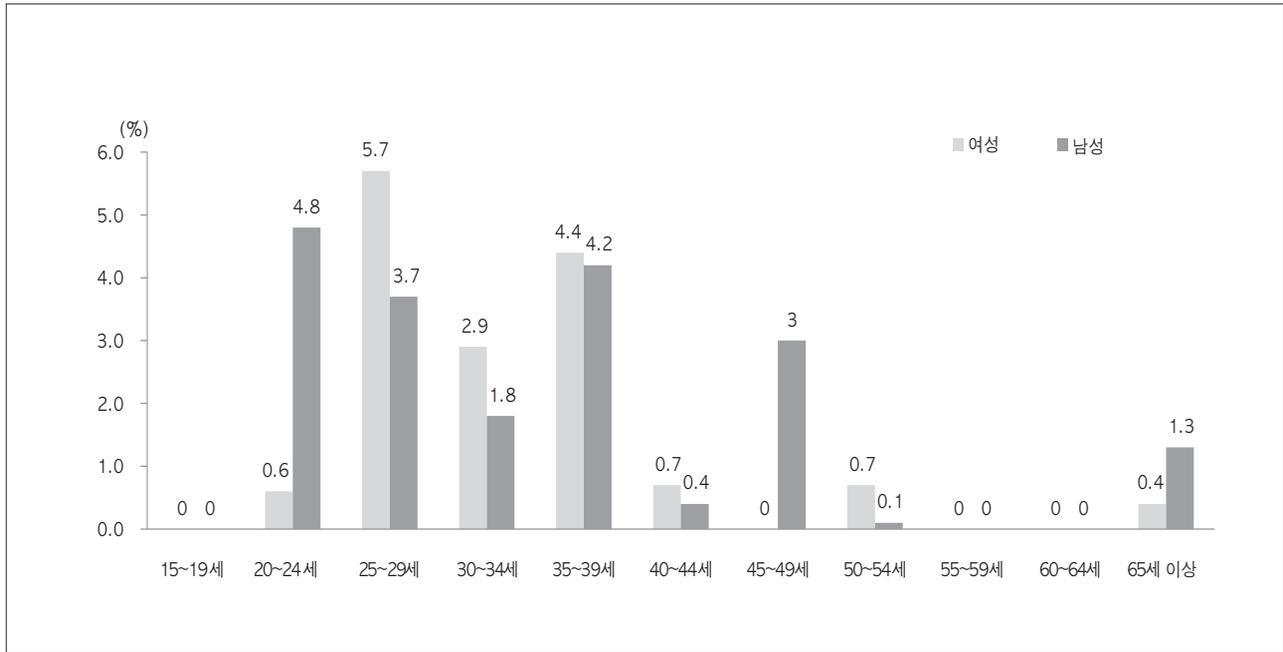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성별, 연령별 실업률

- 2014년 제주도민의 연령별 실업률은 여성은 25~29세에 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5~39세 4.4%, 30~34세 2.9%로 높게 나타남. 남성 실업률은 20~24세 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5~39세 4.2%, 25~29세 3.7%, 45~49세 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실업률을 성별로 비교하면, 25~44세, 그리고 50대 초반 연령층에서는 여성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고, 20대 초반, 40대 후반, 65세 이상 고령층의 실업률은 남성이 높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대학 졸업후의 청년 여성 실업률과 경력단절 이후 직장 재복귀 시점에 여성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그림 12〉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연령별 실업률(201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분석(2014년 하반기 A형).

IV. 경력단절 여성

15~54세 기혼여성 109천명 중 경력단절 여성 13천명
 경력단절 사유 육아 39.7%, 임신·출산 25.9%, 결혼 19.9%, 가족돌봄 12.8%

-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부가자료 분석을 통해서 기혼 여성 중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 규모를 살펴 봄.
- 2014년 4월 기준, 전국 15~54세 기혼 여성 9,561천 명 중에서 현재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 상태인 비취업 여성은 3,894명으로 나타남. 이들 비취업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1,977명으로 비취업 여성의 50.8%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22천 명 증가하였음. 2014년 조사부터 경력단절 사유에 ‘가족 돌봄’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는데, ‘가족돌봄’ 사유를 포함하면, 경력단절 여성은 2,139명이며 비취업 기혼여성의 54.9%를 차지함.

〈표 7〉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 여성 규모(2013, 2014)

단위 : 천 명, %

	15~54세 기혼여성 인구(A)	비취업 여성(B)		경력단절 여성(C)		
		인구	비율(B/A)	인구	비율(C/A)	비율(C/B)
전국						
2013	9,713	4,063	41.8	1,955	20.1	48.1
2014	9,561	3,894	40.7	1,977	20.7	50.8
· 가족돌봄 포함				2,139	22.4	54.9
제주						
2013	109	32	29.3	14	13.2	45
2014	109	31	28	13	12.1	43.3
· 가족돌봄 포함				15	13.8	49.5

주 : 1) 각년도 4월 조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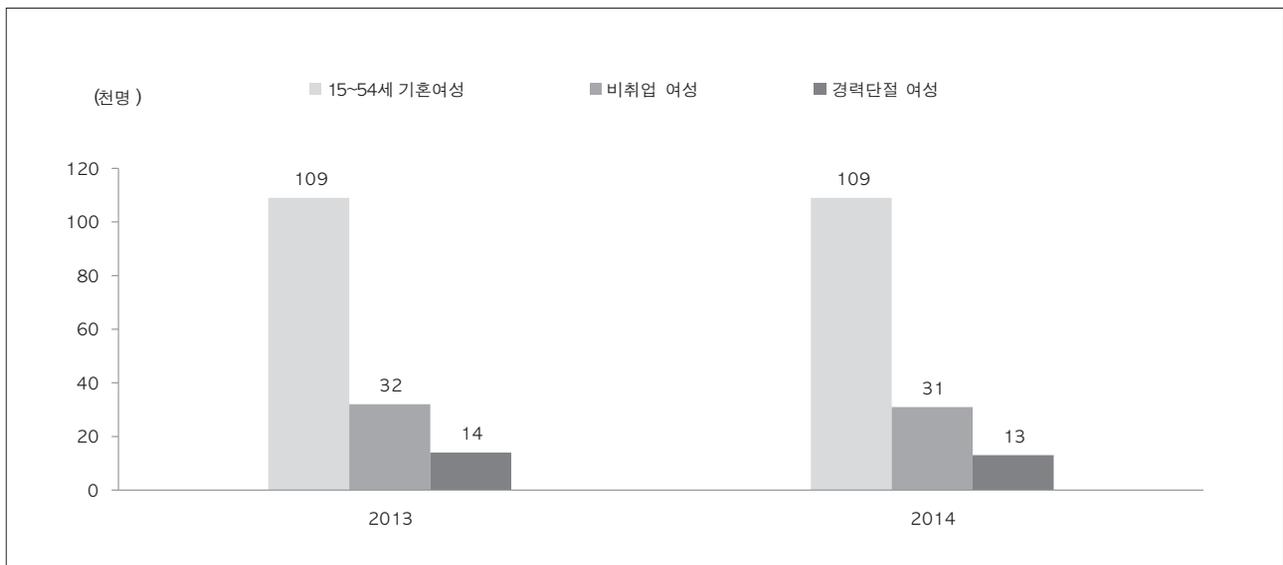
2) 현재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상태인 15-54세 기혼여성(기혼, 사별, 이혼) 중에서 육아, 결혼, 임신출산, 초등학교 자녀교육, 가족돌봄의 이유로 일을 그만 둔 사람임.

3) '가족돌봄' 사유는 2014년부터 추가됨.

자료 : 통계청, "201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통계" 보도자료.

- 2014년 4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15~54세 기혼여성은 109천명이고, 비취업 여성(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인구)은 31천명, 이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3천명으로 15~54세 기혼여성의 12.8%, 비취업 기혼여성 인구의 43.3%를 차지함. 경력단절 사유에 '자녀 돌봄' 사유를 포함하면 2014년 경력단절 여성은 15천명으로 15~54세 기혼여성의 13.8%, 비취업 기혼여성 인구의 49.5%로 나타남.

〈그림 13〉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2013, 2014)



주 : 조사 시점은 각 년도 4월임.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분석(2013년 상반기 C형, 2014년 상반기 C형).

- 전국적으로 경력단절 사유를 살펴보면 결혼이 38.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육아(29.3%), 임신·출산(20.4%), 가족돌봄(7.6%), 자녀교육(4.3%)의 순으로 나타남.

〈표 6〉 전국 및 제주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사유(2014)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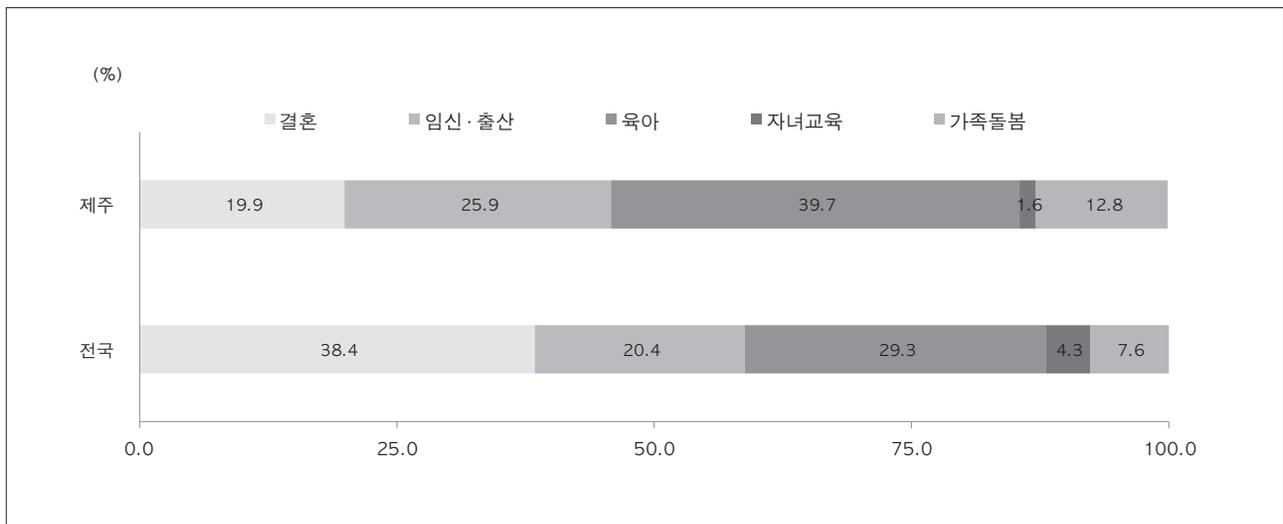
	전국		제주	
	인구	비율	인구	비율
계	2,139	100.0	15	100.0
결혼	822	38.4	3	19.9
임신·출산	436	20.4	4	25.9
육아	627	29.3	6	39.7
자녀교육	93	4.3	0	1.6
가족돌봄	162	7.6	2	12.8

주 : 현재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상태인 15-54세 기혼여성(기혼, 사별, 이혼)의 경력단절 사유임.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분석(2014 상반기 C형).

- 제주지역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를 살펴보면, 육아가 39.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임신·출산(25.9%), 결혼(19.9%), 가족돌봄(12.8%), 자녀교육(1.6%)의 순으로 나타남.
-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히 결혼과 함께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다고 한다면, 제주 여성은 결혼보다는 출산기와 특히 육아기에 경력 단절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제주 여성은 전국 여성 대비 가족돌봄 사유로 경력단절 되는 경우가 1.7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임.

〈그림 14〉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201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분석(2014년 상반기 C형).

V. 요약 및 시사점

- 제주지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정도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임(2014년, 제주 60.5%, 전국 51.3%).
-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매우 활발하지만, 직업의 지위와 임금을 고려할 때, 전국 여성 및 제주 남성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제주여성의 일자리 정책은 고용의 양적인 확대보다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의 남성 실업자 규모는 지난 몇 년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 실업자와 실업률은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임. 이는 구직활동을 하는 여성이 증가함을 말하며, 기업의 인력 수요와 여성의 구직 욕구를 연결할 수 있는 구직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제주 여성의 실업 동향에서 주목할 점은, 25~29세 청년 여성 실업률이 타 연령층에 비해 최고점(5.7%)을 드러내면서 제주 청년 여성의 취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냄. 청년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청년 여성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고, 청년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제주 여성은 전국 여성과 비교할 때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작지만, 경력단절의 사유는 전국 여성과 마찬가지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및 가족 돌봄 등의 이유가 절반 정도를 차지함. 전국 여성과 비교할 때 제주 여성은 결혼 시기보다는 출산과 육아기에 집중적으로 경력단절 현상이 일어나면서 육아기 주 연령대인 3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의 감소를 초래함.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이용이 확대되어가는 시대에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재복귀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63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 2청사 2별관
T : (064) 710-3482 F : (064) 710-3489
Home page : www.jewfri.kr